

가까운 곳에 보더스 서점이 새로 문을 열던 날의 밤 나들이는 특별했다. 11월 첫날만, 개점 시각인 저녁 6시부터 특별히 오픈 기념 할인을 하니, 비싼 책값에 목마르던 책벌레들이 버르던 책 한아름씩 안고 계산대 앞에 줄지어 선다. 새 서점인데도 오래된 듯 보더스 특유의 아늑한 서가가 부담 없는데, 개점 축하 화환 대신 향긋한 와인과 초콜릿을 나누며 던지는 덕담이 가득하다. 2층의 어린이 서가 사이에선 마이크 잉크펜의 캐릭터 강아지 ‘키피’가 아이들을 즐겁게 한다. 어릿광대로 분장한 미술사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작은 미술을 펼친다.

**전문적인 안내와 다양한 이벤트가 매력**

보더스의 분류는 섬세하고 친절하다. 예술 코너의 건축 분야를 보면, 건축과 비평, 건축과 역사, 중세 건축, 영국 건축, 현대 건축, 중국 건축, 성당 건축, 건축 사진, 건축가들의 알파벳순 전기 등. 모든 서가의 이어지는 책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번 그 주제의 모든 책들을 독파해 마니아가 되고 싶은 유혹도 느낀다. 각 분야마다 두터운 독자층이 있다는 말일 게다.

1971년 미국에서 톰과 루이스 보더스 형제가 시작한 보더스 서점의 역사는 영국에서도 대형 체인서점의 뿌리를 내렸다. 1992년 미국의 월튼북스가 투자하면서 보더스 그룹으로 거듭난 후, 1997년엔 런던의 ‘북엑스트라’와 손 잡으며 보더스 유케이를 설립해 급속하게 확산됐다.

런던의 서점거리 ‘채링크로스’의 보더스는 규모로나 전문적인 안내에서나 뛰어나다. 물론 넉넉한 공간과 음악매장, 카페도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다. 보더스의 특징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이벤트에서 확인하다. 저자들의 강연과 사인회도 물론이지만,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아침 모임’이나 ‘점성술 독회’, ‘피부관리 상담’, ‘책벌레들의 독서모임’, 기타리스트의 라이브 공연, 게다가 ‘헤리포터의 날’까지 모든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이벤트가 줄

# 친숙한 이미지의 ‘보더스’와 학구적인 ‘워터스톤즈’

영국 대형 체인서점의 양대산맥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워터스톤즈와 보더스에서 사람들은 책과 함께 음악과 커피와 아늑한 소파를 누린다. 사진은 지난해 한 워터스톤즈에서 열렸던 코믹 아트 전시회.

지어 있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둔 이즈음엔 ‘보더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을 할인 판매하고, 매장은 트리장식이 아닌 성탄절 분위기에 어울리는 책들로 단장했다.

**유럽 내 최고의 학술서점으로 자리잡아**

보더스와 함께 영국 대형체인서점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워터스톤즈’는 1982년 첫 문을 열었다. 1995년에 1백번째 체인점을 열면서 지금까지 유럽과 아일랜드에 2백여 곳 이상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그룹이다. 런던에서도 변화한 거리, 피카딜리 서커스에 있는 워터스톤즈는 유럽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크다. 특히 워터스톤즈는 각 체인마다 개성 있는 전문서점의 역할을 독특히 한다. 고어 스트리트의 워터스톤즈는 학술서점으로 유럽에서 으뜸이다. 영국서점답게 워터스톤즈는 의미 있는 서점문화를 나름대로 이르고 있다.

1999년에는 ‘채널 4’와 ‘20세기 1백권의

책’을 공동조사했는데, 영국인들은 J. R. 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최고의 책으로 꼽았다. 또 BBC와 함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조사했을 때 로얼드 달의 《마틸다》가 1위로 선정됐다.

이벤트 또한 보더스와는 대조적으로 묵직하고 학구적이다. 11월의 이벤트 주제는 ‘과학과 천체’ ‘타임머신은 만들 수 있는가’ ‘인간 계몽’ ‘역사란 무엇인가’ ‘아인슈타인과 피카소’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관련저자가 강연한다. 특히 지난 8일엔 신간《호두껍질 속의 우주》를 퍼낸 스티븐 호킹이 영국 독자를 만나러 왔다. 예술가들의 책을 주제로 한 독특한 오브제 전시 판매도 볼거리고, 성탄절을 앞둔 ‘어린이 북페어’도 열린다.

런던 시내에 갈 때마다 들르곤 하는 워터스톤즈와 보더스의 분위기에 이젠 제법 익숙하다. 사람들은 책과 함께 음악과 커피와 아늑한 소파를 마음껏 누린다. 이방인인 나는 감히 그 널찍하고 편안해보이는 소파에 파묻혀 책을 읽지 못한다. 한국책방에서 무거운 책 사들고, 허리가 휘도록 서서 읽던 습관 탓일까. ■